

황주홍 군수 소환 ... 군민들 시위

강진장학재단 기금 의혹 수사 ... 300여명 경찰청사 물려와 항의

광주경찰 신병처리 여부 촉각

‘강진 장학재단 기금 불법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은 1일 황주홍 강진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기업 상대 강제 모금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황 군수는 “관련법에 따른 정상적인 공무”라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경찰이 혐의 사실을 밝혀내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건 여부 촉각=경찰은 이날 황 군수를 불러 기업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했는지 여부와 일부 장학금 전용 의혹, 승진 공무원 강제 할당 등에 대해 캐물었다.

경찰은 광주경찰청 4층 조사실(진술녹화실)에서 황 군수에 대한 여러 의혹 중 장학금 일부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토대로 황 군수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 쟁점=경찰은 황 군수가 장학기금 조성 당시 승진한 강진군 소속 공무원에게 기부금을 강제할당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황 군수는 5급 이상 공무원별로 1억원의 장학기금 모금 목표액을 설정해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6급 이상 승진자 61명 중 52명이 총 1억1288만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사실상 기부금 강제할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황 군수 측은 “자발적 기부”라

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특히 군과 각종 계약을 맺은 업체 324곳에 기부금(총 기부액 14억원)을 내도록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관공 공사를 따낸 기업들이 공무원들의 권유에 못 이겨 뇌물성 기부금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황 군수는 “자발적 기탁일 뿐”이

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군이 장학금 중 약 1억 50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용한 의혹과 일부 장학기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군이 장학금을 전용한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배임 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한 대상이나 목적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 경우 혐의 적용에 난항이 예상된다.

◇군민 집회=강진 변영희와 노인회 등 군민 300명은 이날 광주지방경찰청사 앞에서 강진 장학재단 수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군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황 군수가 무슨 죄가 있느냐. 초법적으로 이 나라 법치주의를 짓밟는 광주경찰청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 2개 중대 180명의 경력을 청사 주변에 배치했으나 황 군수가 소환된 뒤 군민들이 자진해산하면서 물리적 충돌이나 마찰은 없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군민장학회 기금 조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주홍 강진군수가 1일 오전 광주시 관산구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지지자들 사이로 출석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성당 한달 새 10곳 털렸다

심야시간 유리창 깨고 침입 ... 경찰, 동일범 가능성 수사

광주지역 성당들이 심야시간에 잇따라 털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광주지역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 광주시 남구 성당에 누군가 유리창을 깨고 침입, 사무실

서랍 등에 보관돼 있던 현금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같은 날 새벽 서구 모 성당에도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절도범이 유리창 방충망을 뜯고 들어와 현금 등 3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도주했다. 또 지난달 17일에도 북구 한 성당

에 심야시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이 침입해 현금과 디지털 카메라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싹쓸이 해갔다.

앞서 지난달 6일 동구 한 성당에도 누군가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캐비닛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원을 훔

겨 달아나는 등 최근 광주지역 성당을 무대로 한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난 한 달 동안 절도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역 성당은 ▲남구 1곳 ▲서구 2곳 ▲남구 4곳 ▲북구 3곳 등 총 10곳에 이르며, 피해액은 최소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수법과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 등을 토대로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성당 절도 사건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9분 해질 18시 54분 달돋이 05시 14분 달질 17시 50분

구름 낀 하늘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광주	흐림	5/16°C
목포	흐림	5/13°C
여수	흐림	9/13°C
나주	흐림	3/16°C
완도	흐림	6/15°C
구례	흐림	3/17°C
나남	흐림	3/15°C
장흥	흐림	3/16°C
순천	흐림	7/16°C
영광	흐림	2/13°C
진도	흐림	3/15°C
전주	흐림	4/15°C
군산	흐림	3/12°C
남원	흐림	2/15°C
축산도	흐림	5/9°C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서해 북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남해 동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보통 주의 낮음

◇주간 날씨 기상예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일)	4(월)	5(화)	6(수)	7(목)	8(금)
날씨						
최저/최고	4/15	4/16	6/18	6/18	9/14	7/15

광주·전남 산불 경계경보 ... 공무원 비상근무

광주와 전남도는 1일 ‘산불위험 경계경보’를 내리고, 당분간 각 시·군·구청 등 관계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를 특별 지시했다.

광주시는 산불감시 인력을 현재 190명에서 530명으로 증원해 근무조를 편성,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해 계도 활동을 하는 한편 주말과 휴일 등산 등기에 대한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시·도 소방본부는 우선 무등산 등 각 지역 주요 등산로 및 산림과 가까운 마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소관·구청 등 관계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를 특별 지시했다.

전남도는 절기상 청명·한식이 있는 2~6일 관계공무원들에게 휴일을 반납하고 기동 단속을 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에도 낮 12시 30분경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와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야산에서 불이 나 입자 0.1ha가 각각 소실됐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만우절 트위터 글 한바탕 소동 ... “뉘였다”

1일 새벽 한 누리꾼이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메시지가 한 건 때문에 온라인 공간은 한바탕 확연 소동이 벌어졌다.

문제의 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장마비로 별세했다는 것. 꽤 자세한 정황 설명까지 덧붙여 있는 탓에 사실로 받아들인 일부 누리꾼들이 리트윗(RT)해 퍼나르면서 이 글은 트위터 뿐 아니라 각종 게시판 등 인터넷 공간으로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사실인지 묻는 트위터 이용자들의 문의가 쏟아지자 애초 글을 올린 누리꾼은 이날 아침 ‘죽은 거 맞구요’라고 재차 확인하면서 ‘이상 4월 1일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

발생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던 ‘전두환 사망설’은 한 트위터 이용자의 ‘조금 센’ 만우절 장난이었던 셈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만우절 장난과 거짓말의 주무대도 온라인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날 오전 내내 인터넷에서는 ‘대학 등록금 50% 인하 전격 결정’(@beegift), ‘카다가 잡혔군요, 리비아 민주화 파티!’(@sswsong), ‘서울에서 발견된 방사능은 북한 핵실험 때문’(@guddnqhq) 등 각자의 관심사를 반영한 거짓말이 줄을 이었다.

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월 1일이면 장난전화로 몸살을 앓았던 소방서에는 최근 허위 신고가 크게 줄었다. 최근 2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등 강력 제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행뉴스

2순환도로 전좌석 안전띠 단속 첫날



광주남부경찰서 경찰관과 의경이 1일 광주시 남구 송암틀게이트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 홍보·단속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뒷좌석에도 안전띠 있나요?” 과태료 3만원 부과에 승강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1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남구 제2순환도로 송암틀게이트.

틀게이트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광주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모광호(54) 경위 등 직원들과 의경대원들이 안전띠 착용 홍보와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관들이 A4형식 절반 크기의 홍보 전단을 나눠주며 “오늘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좌석 탑승객이 안전띠를 매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자 몇몇 운전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오전 10시30분께 틀게이트를 빠져나간 운전자 김모(여·55)씨가 의경대원의 유도로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씨의 어머니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전자들의 무관심을 보여주듯 김씨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안전띠가 장착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30분 뒤 남부서 경찰관들과 의경대원들은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홍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다. 곧바로 조수석과 뒷좌석에 친구들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임모(여·46)씨가 단속중이던 윤석용(46) 경사에게

적발됐다.

임씨와 조수석에 앉은 친구와 달리 뒷좌석에 탑승한 친구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 임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모든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야 하는 것이냐” 묻자 윤 경사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한 뒤 임씨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했다. 이후에도 몇몇 운전자와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매겨졌다.

이날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 차량의 경우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 등 모든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다.

택시의 경우 기사가 전 좌석에 앉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만약 승객이 이를 무시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기사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홍보와 단속을 한 모광호 경위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는 것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 시민들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283) 김종두



“청와대 비서관” 사칭 청소용역 단 30대 구속

뒷돈 받은 대학직원 들 입건

광주남부경찰은 1일 청소용역을 따내기 위해 청와대 비서관 것처럼 속이고, 대학 관계자들을 협박한 이모(38)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청소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광주 모 대학 직원 A(56)씨와 B(45)씨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 용역업체 대표의 형인 이씨는 지난 2009년 말께 광주 모 대학 청소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4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뒤 거짓이 드러나 계약에 실패하자 ‘모든 사실을 알려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직원 2명은 청소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각각 560만원, 18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가수·탤런트 3명 대마초 흡연 기소

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C씨와 탤런트 P, K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자신의 집과 스튜디오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탤런트 P, K씨는 개그맨 전창걸(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지난 2008년부터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행뉴스

도박 돈 잃자 강도돌변 판돈 빼앗아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데 격분해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서행.

○1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모(61)씨는 지난 2월 28일 화순군 한 음식점에서 함께 도박을 하던 여성 3명을 폭행한 뒤 600만원과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았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과 어울려 다니며 도박을 하다가 “돈 많은 ‘봉’을 데려와 테니 커피에 약을 타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돈을 따먹자”고 제안해 놓고 막상 도박판이 차려지자 피해자 등이 약을 준비했다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 갑자기 강도로 돌변.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